

인터넷 화폐 - 비트코인 동향

양희성*, 권영미

1. 서 론

기존의 인터넷에서의 상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 제 3자인 금융기관을 거쳐 거래가 행해지는 전자 지불 방식에 의존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의 전자화폐들도 금융기관을 통해 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반해 Bitcoin(비트코인)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Peer-to-Peer 방식의 글로벌 디지털 가상 화폐 시스템으로 지난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논문인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으로부터 시작 했다. 그 후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블록을 채굴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시작 되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실물화폐와 다르게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 기관의 개입이 없는 화폐로서 전 세계 누구와도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거래소등을 통해 실물화폐와 환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지만 2013년에 최초의 비트코인 결제 상점이 생긴 이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120여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엔 비트코인 환전 ATM도 생겼다.

본고에서는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고 현재 세계 각 국가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은 어떤 상황인지, 비트코인 가치의 현황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문제점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 살펴본다.

구성은 2장에서 비트코인의 기본개념을, 3장에서 비트코인의 국가별 정책 현황을, 4장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동향을 알아보고 비트코인의 활용 동향에 대해 5장에서 기술한다. 6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비트코인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 쓰였던 판매자 - 금융기관-구매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Peer-to-Peer(P2P)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직접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 전자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은 P2P 방식으로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개인 간 간편하고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다. 그림 1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다른 전자 화폐들과 달리 쌍방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영미,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9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전화: 042-821-6890, FAX: 042-821-5586, E-mail : ymkwon@cnu.ac.kr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E-mail : yhshhh001@naver.com)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으로 실물 화폐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전자화폐들과 차별성이 있다[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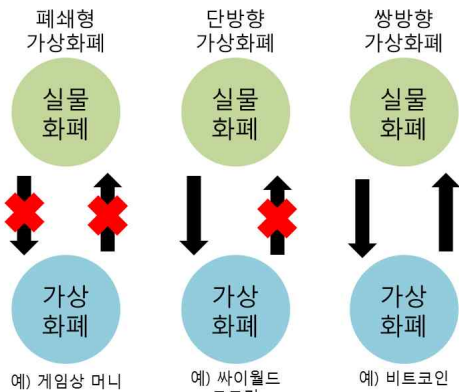


그림 1. 가상화폐 시스템 구조 비교

하지만 비트코인은 특성상 간편하게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비트코인의 단위는 1BTC = 1bitcoin 이며 0.01BTC = 1cBTC = 1centbitcoin, 0.001 = 1mBTC = 1millibitcoin, 0.000001BTC = 1μBTC = 1microbitcoin 와 같은 여러 스케일의 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최소단위는 0.00000001BTC = 1satoshi 이며, 여기서 satoshi 라는 단위명은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최초로 고안해낸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2.1 비트코인의 생성과 저장

비트코인은 발행기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따로 특별한 발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채굴(mining)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비트코인을 담을 지갑(wallet)을 생성해야 한다. 지갑은 비트코인을 보관하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BLOCK chain이 있는데, BLOCK chain은 웹사이트 형 지갑이며 이밖에도 소프트웨어 형 지갑, 모바일폰 형 지갑이 있다.

지갑을 생성한 후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다음, 공식사이트에 접속해 어려운 난이도의 수학문제를 풀어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채굴(mining)’이라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개인이 채굴이 불가능할 만큼의 복잡한 산수 풀이 과정이 필요하다. 채굴된 비트코인은 개인의 지갑에 저장이 되고,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총 채굴량은 2100만개로 정해져 있다. 현재 절반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으며, 점점 채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2.2 비트코인 시세의 변동

2009년 처음 비트코인이 채굴되었을 때의 추정 시세는 1 BTC에 0.0008달러였지만 2012년초에 비트코인의 거래가 활발해짐으로써 1 BTC에 10달러 선으로 올라섰다. 이후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 했고, 2015년 3월 현재 280달러 정도 까지 시세가 올라갔다. 이는 비트코인이 실물화폐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화정책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림 2는 최근 3개월간 1 BTC의 한국 시세와 거래수량에 관한 그래프이다[8]. 이 그래프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최근 우리나라 비트코인시세 변화와 거래량

3. 비트코인의 국가별 정책 현황

비트코인은 특성상 관리주체가 없고 정부가 통제 할 수 없는 화폐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소지가 있고 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Fintech(핀테크)'산업을 활성화시킬 핵심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발 빠르게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3,4].

그림 3에서 대륙별로 봤을 때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유럽은 비트코인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회는 2009년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를 내놓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북미대륙 또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으며, 최근엔 미국에 합법적인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겼다. 아시아 국가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중국은 금융기관과 지불중개업체에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 시켰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동향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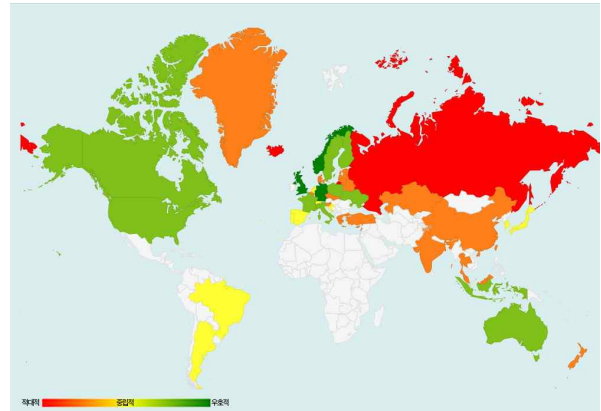


그림 3.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지도

3.1 긍정적인 국가들

영국 정부는 금융혁신을 위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이다. 영국 정부는 2014년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세계에서 비트코인 사용이 가장 편리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여러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3월 2일부터 비트코인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비트코인 거래자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2013년 8월 비트코인을 온라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비트코인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즉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개인 간의 사적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베를린은 많은 수의 IT신생기업이 활동 중이며, 핀테크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 9flats.com(개인주택 단기임차 온라인 플랫폼)이나 Lieferservice.de(음식배달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등도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트코인을 호의적으로 받아 들였다. 2014년 1월 비트코인 거래소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 받은 업체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지도안을 내놓았다.

미국의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통화로 분류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를 과세하게 했다. 또한 각각의 주정부가 서로 비트코인에 대한 다른 규제를 마련하는 중이다. 2014년 7월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뉴욕 주 정부가 비트코인 교환 활동을 포함한 사업을 벌이면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를 내 놓았다. 요번 2015년 초에 처음으로 미국의 벤처기업 ‘코인베이스(Coinbase)’가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24개 주에서 비트코인거래소 개설을 허가 받아 운영 중이다.

호주 국세청(ATO)은 비트코인도 다른 화폐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비트코인에 외화처럼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3.2 중립적인 국가들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2013년 12월 27일 내놓은 보고서에 ‘비트코인이 지금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2014년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Mt.Gox가 파산하고 일본 정부가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아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여론이 일자 일본 정부에선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비트코인을 금(Gold)과 같은 상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거래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기로 결정했다[5].

3.3 부정적인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유통량의 8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BTC China는 설립된 지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5일 비트코인의 유통이나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금지하지 않은 상태이다.

태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번복한 나라이다. 2013년 7월 29일 태국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에 연관된 활동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이 결정으로 태국 내 비트코인 사업체는 문을 닫았다. 그 후 2014년 1월 31일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비트코인 거래소에 영업을 재개해도 좋다고 했고 2월7일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을 쓰는 게 불법이다. 2014년 2월6일 러시아 검찰 총장실은 러시아 루블만 화폐로 규정한 현행법을 근거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쓰는 일이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은 뒤 자본 해외 유출을 불법으로 규정한 자금 통제 안을 도입했다. 비트코인이 자본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불만을 가진 개발자들이 2014년 직접 비트코인과 비슷한 오로라코인을 만들어 경제 회생 실험에 나섰다. 오로라코인을 33만 아이슬란드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사용을 유도해 독자적인 화폐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6].

4. 비트코인 가치 동향

비트코인의 가치는 주식처럼 시시때때로 변화해왔다.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와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대금을 받는 곳이 많아지고 개인 간 거래에도 비트코인이 쓰임으로써 관심이 많아지고 있었다. 이후 2013년 비트코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하였다[6].

것이다.

4.1 2013년 이전의 비트코인 가치

- 2009년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가 공개되었고 New Liberty Standard에서 10월 5일에 최초로 교환가치가 만들어졌다. 이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1달러 당 1,309.03 BTC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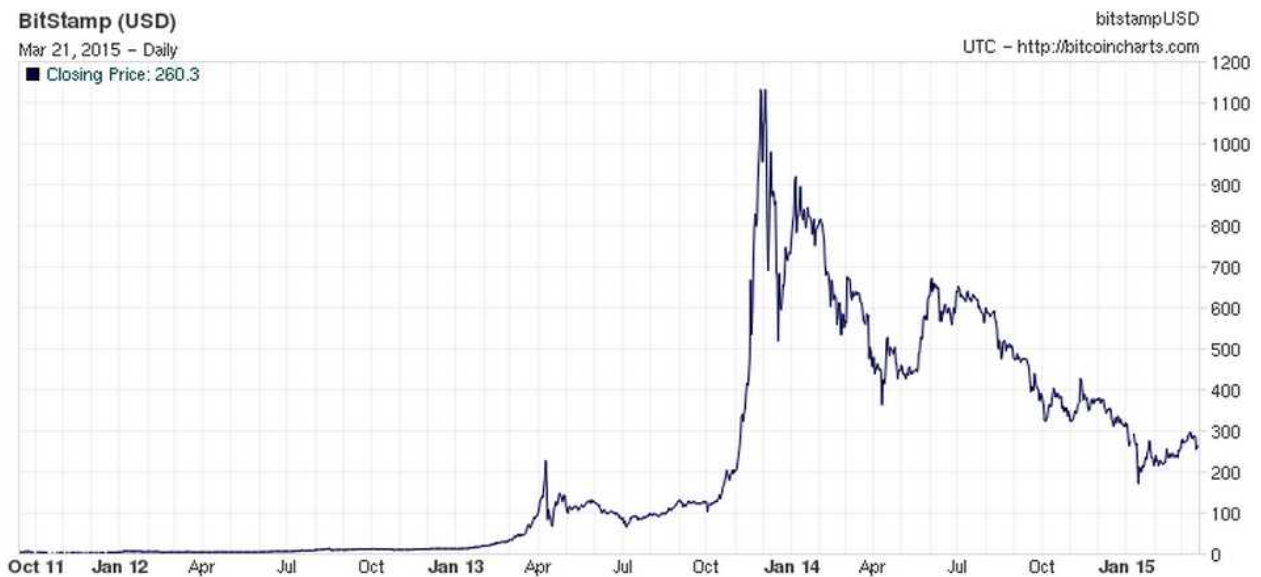


그림 4. BitStamp의 비트코인 USD 시세 변화 변화 그래프

그림 4에서 보면 2013년부터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파르게 가치가 올랐는지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9, 11].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일 높았을 때는 2013년 11월이다. 이때 비트코인은 1 BTC에 약 1150달러까지 가치가 올랐었다. 이 후 비트코인은 가치가 하락해 2015년 3월 현재 1 BCT에 250달러 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가치변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던 2013년 이전의 비트코인 가치변화와 투자자들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가치변동이 급하게 일어나던 2013년 이후의 비트코인으로 나누어 얼마나 가치가 변해왔는지 살펴볼

- 2010년

5월 22일에 최초로 비트코인과 현물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때 현물은 피자 2판 이었고 거래에 사용된 비트코인은 10,000 BTC였다. 당시 10,000 BTC의 가치는 41달러 정도였고, 지금의 가치는 한화로 31억 정도이다.

7월에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Mt.Gox가 탄생했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탄생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자 개인이 채굴 하는 것이 아닌 공동채굴장이 만들어지고 공매 서비스, 최초의 모바일 거래도 이루어졌다.

• 2011년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2월에는 1 BTC : 1달러가 되었고, 6월에는 1 BTC : 35달러까지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후 가치가 떨어져 2011년 말 3달러까지 가치가 하락하였다.

• 2012년

2012년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큰 변동은 없지만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였다. 4달러 선에서 시작된 비트코인 가치는 2012년 말까지 14달러까지 오르게 되었다.

4.2 2013년 이후의 비트코인 가치

• 2013년

2013년에는 2월 28일 이후로 이전 최고였던 35달러를 돌파해 점점 투자자들이 몰려 4월10일까지 266달러까지 가치가 급등하였다가 이후 바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 1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11월까지 200달러수준으로 가치가 오르다가 12월 4일 1150달러까지 폭등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비트코인 규제로 12월 말까지 700달러수준 까지 하락하게 된다.

비트코인이 중국에 의해 가치변동이 큰 이유는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는 75%이상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11].

• 2014년

2013년 말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로 인한 비트코인의 가치 하락이후 2014년 1월 6일 게임업체 '징가'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0달러를 회복하였다.

하지만 가치 상승은 잠시일 뿐, 2월 7일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인 Mt.Gox의 자금인출 중단을 기점으로 다시 가치가 하락하였다. 2월28일 Mt.Gox는 한화로 670억 원에 달하는 85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하였다. 이 때문에 2013년 중국정부의 규제 이후로 비트코인은 또 한 번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후 5월 20일 이후로 비트코인은 670달러 수준까지 가치가 오르는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 이 반등의 배경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 비트코인 허용, 캘리포니아 주의 비트코인 합법화 등이 있다.

2014년 7월부터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2월말까지 300달러수준으로 감소했다. 2014년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Mt.Gox의 파산의 여파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15년

2015년 1월7일 대형 비트코인거래소인 비트스탬프에서 해킹으로 인한 비트코인 분실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270달러수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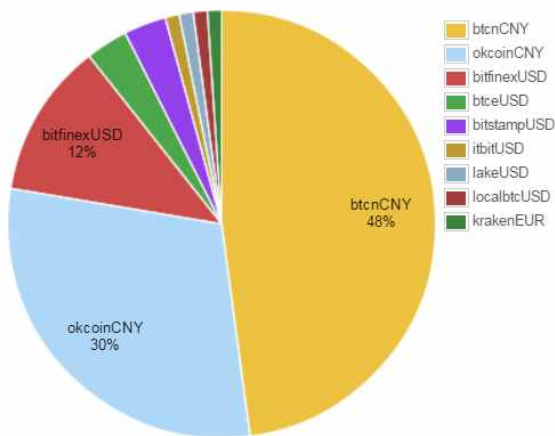


그림 5. 거래소별 전체 거래량 분포도

서 170달러 수준까지 가치가 하락한다. 이후 비트코인은 가치를 서서히 회복하여 현재 작년 말과 같은 수준인 280달러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비트코인은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를 기점으로 가치의 변화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말 이전에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의해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이후엔 중국의 비트코인 사용 규제, Mt.Gox의 해킹과 같은 사건으로 인한 분실로 사람들의 불안감에 지금까지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 비트코인 활용 확대

과거엔 비트코인으로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물 및 상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곳이 증가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약 20개의 온라인 쇼핑물만이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허용했지만, 현재 수천 개 이상의 인터넷 쇼핑물이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의 큰 기업으로만 보면 지난해에는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고, 마이크로 소프트(MS) 또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에는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이 미국 내 전자쇼핑물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라쿠텐은 올해 2분기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규모 점포에서도 비트코인결제가 확산되고 있다[11].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결제가 가능한 곳은 많이 없지만 지난 2013년 비트코인 결제 가능 국내 첫 점포 등장에 이어 점점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포들이 늘어나서 현재 전국 120여 곳에서 비트코인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10].

또 올해에는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는 ATM이 설치되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기부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과정에서 수수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014년 루마니아 대통령 후보는 비트코인으로 정치헌금을 받는다고 했고, 세계 여러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으로 정치헌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독일의 신문사, 미국 적십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 지원 등 많은 단체와 비영리단체에서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

6.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점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치가 오르고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폭발적인 가치 상승으로 인한 투기문제,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개인지갑 해킹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충격들은 모두 비트코인의 가치를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이다. 이러한 가치변동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4].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거래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선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는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6.1 비트코인 투기

첫 번째로 비트코인 투기 문제이다. 비트코인의 투기는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을 일으킨다. 위 그림 2, 4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가치 변동이 하루에도 가치가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2013말에는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투자열기로 가치가 1150달러를 돌파했다. 비록 그 후 중국정부의 규제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상승 및 버블 가능성은 비트코인을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현재 발행된 비트코인의 70% 가량은 전혀 유통되지 않고 있는 점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6.2 비트코인 도난, 해킹

비트코인의 도난과 해킹사례들은 비트코인의 가치안정성에 위협을 하는 큰 요인이다. 2014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Mt.Gox의 해킹으로 인한 파산 사례 이후에도 여러 비트코인 거래소에서의 도난, 해킹 사건이 발생 직후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세계적인 비트코인 지갑서비스 Block chain을 한 해커가 해킹한 후 비트코인을 다시 돌려주는 사건에 이어 지난 1월4일엔 슬로베니아에 본사를 둔 비트스탬프에서 1만9000비트코인을 해킹당하고, 올해에는 국내 첫 비트코인 해킹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6.3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거래

각 나라의 정부의 입장에서선 비트코인을 이용한 도박, 마약, 무기거래 등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비록 비트코인은 거래기록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 정보가 공개가 되고, 환전을 할 때에도 신상정보가 필요하지만 규제가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힘들다.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으로 개인정보를 사고 카드 복제를 한 뒤 컴퓨터부품을 산 뒤 되파는 방법으로 6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기도 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에는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7. 결 론

본고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과 특징, 사용 방법을 소개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현황과 비트코인의 가치에 외부 충격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았다. 또 최근 비트코인의 사용처들의 증가 추세와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비트코인은 국가적으로 핀테크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점, 개인이 빠르고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비트코인이 불법인 나라를 제외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나라 어디에서도 통용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규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정하지 않고 관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가는 만큼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해킹, 불법거래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다.

비록 비트코인의 본래 목적인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통화로써 존재한다.' 라는 개념에 다소 상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비트코인에 대한 지위를 확실히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http://bitcoin.org/bitcoin.pdf>, Nov. 2008

[2] 강서진, "비트코인(Bitcoin)의 이해와 전망,"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Nov. 2013

[3] <http://www.bloter.net>.

[4] 전주용,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3-08, 2013

[5] <http://asia.nikkei.com/Politics-Economy>.

[6] <http://www.bithub.co.kr>.

[7] <http://www.bitcoinwiki.or.kr>.

[8] <https://www.xcoin.co.kr>.

[9] <https://blockchain.info>.

[10] <http://www.bitchain.co.kr>.

[11] <http://bitcoincharts.com>.



양 희 성

- 2014년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학사
- 2014~현재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대학원
- 관심분야 : Internet Protocols, WSN



권 영 미

- 1986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 1988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 1996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 1993년~1995년 ETRI 연구원
- 1996년~2002년 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 2006년~2007년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객원연구원
- 2002년~현재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Internet Protocols, WSN, Embedded System, Cloud computing